

지속가능한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한
노력

01

노벨리스코리아

- 🔍 업종 | 알루미늄 압연
- ★ 설립일 | 1999년 9월
- 💰 매출액 | 2조 1,740억 원
- 👤 직원 수 | 880명
- 🌐 홈페이지 주소 | www.novelis.com



노벨리스코리아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이야기



🗨️ 지속가능한 세상을 함께 만든다

모든 사람이 삶의 목적을 갖기를 원하는 것처럼 기업도 수익 창출을 넘어 보다 큰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함께 만든다.”는 노벨리스의 목적 역시 노벨리스의 존재 이유이자 정체성을 나타낸다. 아울러 노벨리스의 업무 방식, 의사 결정, 추구하는 파트너십 등 노벨리스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이 된다.

노벨리스는 목적 지향적인 회사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직원, 고객,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한다. 안전, 인프라, 글로벌 파트너십, 혁신,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노벨리스의 목적을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노벨리스는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객, 공급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저탄소 제조 모델

노벨리스는 음료 캔, 자동차, 건축,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 고부가가치 알루미늄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 알루미늄 압연 및 재활용 기업이다. 재활용 알루미늄 원료 사용을 꾸준히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알루미늄은 재활용해도 본래의 가치나 품질이 저하되지 않아 무한대로 반복해 재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을 재활용하면 천연자원에서 알루미늄을 생산할 때와 비교해 에너지 소비량이 95% 절감되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95% 줄어든다.

노벨리스는 알루미늄 재활용의 경제적, 환경적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자재 조달에 있어 천연자원으로부터 생산하는 1차 알루미늄 대신 재활용 알루미늄에 집중하고 있다. 노벨리스 및 고객사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과 폐알루미늄 음료 캔 등이 노벨리스의 첨단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새로운 고부가가치 알루미늄 제품으로 재생산된다.

💬 알루미늄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

노벨리스는 매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해 용수 소비량, 폐기물, 안전, 온실가스 배출량, 재활용, 지역사회 공헌 등 지속가능경영 목표들을 추적 관리한다. 노벨리스에서 실천하는 지속가능성 노력의 중심에는 재활용 알루미늄 원료 비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노벨리스의 재활용 원료 사용률은 2019년 사업연도 기준 약 61%에 달하며, 2011년 33%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상북도 영주에 위치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노벨리스 리사이클센터는 최첨단 알루미늄 음료 캔 재활용 시설로서 노벨리스의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노벨리스는 2019년 영주 리사이클센터 설비 증설에 약 166억 원을 투자해 재활용 원료 사용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노벨리스가 무한순환경제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하는 알루미늄 음료 캔은 연간 약 7백 40억 개에 이른다.

지역사회 프로그램 | 노벨리스 네이버

사회공헌은 노벨리스의 지속가능성 목표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 노벨리스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FIRST 로봇틱스나 해비타트처럼 확실한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자선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벨리스는 매년 30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약 4백만 달러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직원들과 함께 1만 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지역사회 참여와 자선 투자 활동을 후원 및 관리하기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 '노벨리스 네이버'는 노벨리스의 목적에 기반하여 노벨리스 고유의 강점을 심분 활용해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창출 실천 사례



💬 알루미늄 캔 재활용 캠페인

세계 최대 알루미늄 재활용 기업인 노벨리스는 알루미늄 캔을 올바르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캔크러시챌린지(CanCrushChallenge) 캠페인을 진행했다. 소비자가 마시고 버린 알루미늄 음료 캔은 경상북도 영주에 위치한 노벨리스 리사이클센터에서 재활용되어 불과 60일 만에 새로운 음료 캔으로 만들어지고, 이 과정은 무한히 반복될 수 있다. 노벨리스의 무한순환형 알루미늄 캔 재활용 시스템은 대표적인 자원순환경제 모델로서 음료 패키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알루미늄 캔을 재활용해 다시 캔으로 만드는 캔 투 캔(Can-to-Can) 재활용의 막대한 경제적, 환경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알루미늄 캔이 수거되어 다시 캔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30퍼센트 미만으로 추정된다. 상당수의 폐알루미늄 캔이 제대로 분리수거되지 않거나 수집 과정에서 오염되어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이에 노벨리스와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은 2019년 시민들에게 알루미늄 캔 재활용의 혜택과 올바르게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리는 캔크러시챌린지를 고



2019 노벨리스 캔크러시챌린지 캠페인



초등학생들과 함께 재활용 캠프 '노벨리스 어린이 그린 비즈 캠프'

척스카이돔에서 진행했다. 노벨리스는 야구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모은 알루미늄 캔과 온라인 콘텐츠에 일대일 매칭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총 3천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재활용 자원 수거인들을 위한 안전 리어카 제작과 리어카 광고 기금으로 기부했다.



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 재활용 교실 'I Think I Can'



🗨️ 지역 로봇 교육 지원

노벨리스는 과학 기술 분야의 인재 육성을 목표로 전 세계에 걸쳐 45개 이상의 FIRST 로보틱스(Robotics) 팀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 협업, 팀워크를 독려하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체적으로 로봇을 만들고 서로 경쟁하며 다양한 작업과 과제를 수행한다.

노벨리스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로 전 세계 46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지원했으며, 이들이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할 확률이 2배나 높아지는 성과를 올렸다. 노벨리스는 40개 이상의 FIRST 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매년 3,100개의 FIRST 로봇 경진대회 부품 키트 제작을 위한 알루미늄을 기증하고 있다. 또한 노벨리스 엔지니어는 소속 지역사회 팀에서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노벨리스코리아는 FEST 창의공학교육협회가 주최하는 코리아로봇챔피언십의 공식 후원사로서 생산공장이 위치한 경상북도 영주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로봇



코리아로봇챔피언십

코딩 교육을 실시하며 차세대 엔지니어 양성에 일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벨리스는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수학, 과학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차세대 혁신 인재 양성에 계속해서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 노벨리스 네이버 글로벌 봉사의 달

매년 10월은 노벨리스 네이버 글로벌 봉사의 달이다. 전 세계 모든 노벨리스 사업장이 10월 중 지역사회에서 직원과 가족, 파트너들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2019 회계연도에 9개국 32개 사업장에서 380개의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지원했는데 이 프로젝트들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교육을 지원하며 알루미늄 재활용을 증진하는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벨리스 코리아 봉사의 달 행사(청계천 청소)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 '사랑의 연탄 나누기'



노벨리스코리아 해비타트 집짓기 행사



노벨리스코리아 장애인이용시설 환경개선사업



노벨리스코리아 사랑의 김치 1천포기 담그기 행사

2019년 10월 노벨리스코리아 서울사무소 임직원들은 글로벌 봉사의 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계천 정화 활동에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개최된 제 5회 청계 업사이클링 페스티벌에서는 알루미늄 음료 캔으로 만든 조형물과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 과정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알루미늄 캔 재활용 60일의 여정'을 전시해 청계천을 찾은 서울 시민들에게 알루미늄 캔 재활용의 혜택을 홍보했다.

노벨리스는 직원들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에 보다 의미있는 기여를 하기 위해 온라인 사회공헌 플랫폼을 구축하고 매칭 기부금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할 계획이다.